2015년10월13일년 수능(국어영역)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34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③	⑤	②	①	⑤	⑤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⑤	①	⑤	⑤	③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⑤	③	①	②	③	②	③	②	①
	31	32	33							
	①	④	②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34문제)

1. 위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번 공통지문 문제)

① 배열되어 있는 배들의 닻이 엉키지 않은 것은 뱃머리가 놓이는 방향을 엇갈리게 했기 때문이겠군.

② 배다리가 아치형 모양이 된 것은 강 가운데에는 큰 배를 놓고 강변 가까이에는 작은 배를 놓았기 때문이겠군.

③ 정조 때 배다리의 설치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된 것은 민간의 협조로 민간의 배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군.

④ 정조 때보다 정조 시대 이전에 배다리의 설치 비용이 많이든 것은 배다리를 설치할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구해야 했기 때문이겠군.

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배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폭이 넓은 강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겠군.

2.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후에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학생 1 : 배다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했겠구나.
학생 2 : 시각 자료를 활용해 발표를 함으로써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으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
학생 3 : 다산 정약용 생가에서 본 배다리 모형이 인상 깊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발표 내용이 흥미로웠어.
학생 4 : 발표에서 사용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믿을 만한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
학생 5 : 정조가 배다리를 건너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한 것이 열두 번이나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배다리를 만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어.

① 학생 1은 발표자의 준비 과정을 추측하며 들었다.

② 학생 2는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에 주목하며 들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들었다.

④ 학생 4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⑤ 학생 5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들었다.

3. 위 내용과 <보기>를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 인터뷰를 다녀온 후 결정한 기사 작성 지침 >

- 표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가 인상적으로 전달되도록 제시한다.
-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생소한 지역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인터뷰한 내용 중 시각화가 필요한 내용은 시각 자료를 함께 싣도록 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가 당부한 내용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① 세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마야 문명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표제는 '고대 문명의 숨은 보석, 마야 문명을 찾아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② 정훈: 인터뷰한 내용은 크게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마야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사 내용도 이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좋겠어.

③ 수연: '메소아메리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테니까 이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언급해주는 게 좋겠어.

④ 보미: '마야 문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소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함께 싣도록 하는 게 좋겠어.

⑤ 민희: 학생들이 마야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학예 연구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실으면 좋겠어.

4. 다음은 (나)를 쓰는 과정에서 세운 글쓰기 계획과 그 계획을 점검 · 조정한 결과이다. (나)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6번 공통지문 문제)

글쓰기 계획		점검 · 조정의 결과
물 발자국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 발자국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제시하였다. ····· ⓐ
물 발자국의 개념을 탄소 발자국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어.	→	탄소 발자국은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물 발자국의 개념으로 내용을 한정하였다. ····· ⓑ
물 발자국의 적용 대상과 측정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야겠어.	→	적용 대상보다는 측정 방법이 중요하므로 물 발자국의 측정 방법을 다양한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 ⓒ
물 발자국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밝혀야겠어.	→	민간 차원도 중요하므로 물 발자국의 활용 방안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
물 발자국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 발자국과 관련한 정책을 실시하여 효과를 본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의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번 공통지문 문제)

①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악화될'로 고친다.

② ㉡: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③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산출'로 고친다.

④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오염된 물을'로 고친다.

⑤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6. 다음은 작문 과제 2 를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이것을 반영한 학생의 글이다. ㉠~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9번 공통지문 문제)

< 작문 계획 >

㉠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행사의 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 행사에 참여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 후배들에게 행사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얼마 전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밤샘 책 읽기 행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데 꼭 밤까지 새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독서 체험을 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독서 퀴즈,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면서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소설가 김○○ 선배가 함께해 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설가는 이야기의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읽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를 이 기회에 읽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 밖에 독서 퀴즈도 재미있었고, 조별로 함께한 야식 시간도 즐거웠다. 다만 야식으로 나온 음식들이 너무 식어서 모두들 불만스러워했는데, 다음에는 주최 측이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면 좋겠다.

이번 '밤샘 책 읽기 행사'는 나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입시 준비로 바빠서 책 한 권 읽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도 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내년에 있을 '밤샘 책 읽기 행사'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보 기 >

비음화는 ㉠ 홑받침 또는 쌍받침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 겹받침이 그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① 깎는[깡는], 흙만[흥만]

② 끝물[끈물], 앉자[안짜]

③ 듣는[든는], 읊는[음는]

④ 숯내[순내], 닮은[다른]

⑤ 앞마당[암마당], 값이[갑씨]

8.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ㅇ 형(은/*는) 학교에 가고, 나(*은/는) 집에 갔다.
ㅇ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
ㅇ 나는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너는 부엇을 먹었어?
ㅇ 어서요 읽어 보세요.
ㅇ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①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군.

② 격 조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군.

③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기도 하는군.

④ 보조사는 체언뿐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군.

⑤ 보조사는 격 조사와 결합할 때 격 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군.

9.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지훈이가 눈이 크다.
ㄴ. 그는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ㄱ의 '크다'와 ㄴ의 '알고 있었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② ㄱ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③ ㄴ의 '성실하고'와 '크다'의 주어는 모두 '지훈이가'로 동일하다.

④ ㄴ의 안긴문장에서 앞뒤 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⑤ ㄴ의 안긴문장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10. <보기>의 국어사전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배[1] [배] 명
「1」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배가 나오다.
「2」 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
¶ 배가 부른 마대 자루.

배[2] [배] 명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 배를 띄우다.

배[3](倍) [배:] 명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
¶ 힘이 세 배나 들다.

① '배1'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배1'의 「2」의 용례로는 '배가 불룩한 돌기둥'을 들 수 있군.

③ '배2를 활용한 속담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들 수 있군.

④ '배3'은 소리의 길이에 의해 '배1', '배2'와 의미가 변별될 수 있겠군.

⑤ '배1', '배2', '배3'은 모두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각각 등재하는군.

11. <보기>의 ㉠~ ㉤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괄호의 의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 현규와 숙희는 어제 결혼하였다.
(→ 현규가 숙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
(→ 그림 속 인물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 아버지께서 귤과 사과 두 개를 가져오셨다.
(→ 과일 세 개 중 두 개가 사과라는 의미로)
㉤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 표정이 밝은 사람은 그녀라는 의미로)

① ㉠: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② ㉡: '현규와 숙희는'을 '현규는 숙희와'로 교체한다.

③ ㉢: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한다.

④ ㉣: '귤과 사과 두 개'를 '귤 한 개와 사과 두 개'로 바꾼다.

⑤ ㉤: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12.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16번 공통지문 문제)

① 구름은 수적이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여 만들어 진다.

② 순수한 물로 만들어진 수적보다 용질이 녹아 있는 수적이 성장하기에 더 용이하다.

③ 실제 대기의 응결핵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④ 대기가 냉각되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져 수적이 구름으로 형성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포화 수증기압은 대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압이 아니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압을 나타낸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6번 공통지문 문제)

① ㉠은 구름이나 안개 형성에 있어서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깨끗한 대기일수록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② ㉠은 에어로졸이 응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으로 인해 과포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응결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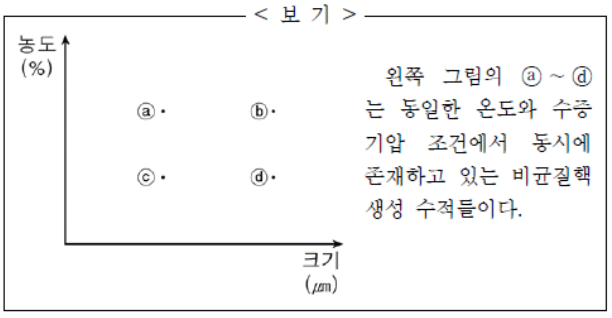
③ ㉠은 수적의 형성에 응결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 크기가 작을수록 응결이 쉽게 일어난다.

④ ㉠은 공기 속에 포함된 수적의 포화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으로 인해 수적은 상대 습도가 100 % 이상인 곳에서만 존재한다.

⑤ ㉠은 대기 속에 존재하는 수증기 분자의 크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실제 대기에서 응결이 일어나려면 수증기 분자가 커야 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6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① 표면 장력이 끼치는 영향은 ⓐ보다 ⓑ에서 더 작다.

② ⓐ와 ⓑ에서의 용질 효과는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압의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③ 용질 효과는 ⓒ에서보다 ⓑ에서 더 크므로, ⓑ의 수적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④ 곡률 효과는 ⓓ에서보다 ⓒ에서 더 크므로, ⓓ의 수적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⑤ ⓐ ~ⓓ는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들어진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① 저항 값이 커서 구조체와 지지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② 구조체가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증가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③ 구조체의 출력 전압을 낮추어 신호처리회로기판에 흐르는 전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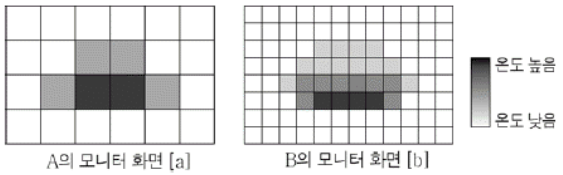
④ 온도 증가에도 저항 값의 변화가 없어 일정한 전류를 신호처리회로기판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온도 증가에 따른 전기 저항의 감소 비율이 커서 피사체의 온도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다음은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A와 B로 찍은 결과물이다. (단, A와 B 모두 같은 렌즈를 사용하고 모니터 화면의 크기도 같음.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네모는 픽셀을 의미함.)



A의 모니터 화면 [a] B의 모니터 화면 [b]

① A는 B보다 마이크로볼로미터의 개수가 더 많겠군.

② B가 A보다 사물의 표면 온도를 더 세분화하여 보여 주는 군.

③ A와 B는 모두 사물에서 방출된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검출해 A는 [a]를, B는 [b]를 구현하는군.

④ [a]와 [b] 모두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 값을 보정한 결과이겠군.

⑤ [a]와 [b] 각각에서 음영이 진한 픽셀은 흐린 픽셀보다 적외선 감지 재료의 온도가 높음을 보여 주는군.

17. '개정 한계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3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A 국가의 헌법 제정 권력은 귀족들이었으며 A 국가의 헌법에는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새로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

① 기존 헌법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②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③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④ 군주제였던 국가 형태가 민주제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개정이 발생한 것이다.

⑤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고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것이다.

18. <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19세기 근대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법률 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오직 법 자체의 형식 논리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사상과 대립된다.

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②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③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④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⑤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

19. 문맥상 ⓐ~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23번 공통지문 문제)

① ⓐ : 상등하다

② ⓑ : 분포된다

③ ⓒ : 피력한다

④ ⓓ : 승계할지라도

⑤ ⓔ : 소급되는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7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ㄱ. A는 곤충이 다리가 세 쌍이며 거미는 다리가 네 쌍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거미를 보고 거미와 곤충의 유사한 모습에만 주목해 거미가 곤충에 속한다고 말했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B는 그 말을 듣고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고 A에게 알려 주었다.

ㄴ. 유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그림을 보여 주며 어떤 그림을 봤는지를 외워 보라고 했다. 유아들은 그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운 반면, 청소년들은 그림들을 '과일', '꽃', '가축'으로 나누어 외웠다.

ㄷ. C는 수업 시간에 영상물을 통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을 배웠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C는 영상물에서 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다. 그 덕분에 그 친구는 무사했다.

① ㄱ에서 A는 거미가 지니고 있는 곤충과의 유사한 모습에 주목하여 범주화했겠군.

② ㄱ에서 B는 거미의 개념과 관련해 곤충과 구별되는 거미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잘못 범주화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군.

③ ㄴ에서 그림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유아들'이 제시된 그림들을 모두 기억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겠군.

④ ㄴ에서 '청소년들'은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각각의 그림 속 대상이 지닌 독특한 고유의 특성에 주목해 외웠겠군.

⑤ ㄷ에서 C는 '친구'가 숨을 못 쉬게 된 것을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군.

21.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7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연역 추론의 예]

㉮ 대전제 : 어류는 모두 아가미로 호흡한다.

⬇

㉯ 소전제 : 잉어는 어류이다.

⬇

㉰ 결론 : 따라서 잉어는 아가미로 호흡한다.

① ㉮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외연에 해당한다.

② ㉯는 '어류'의 모든 내포가 '잉어'의 모든 내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범주화한 것이다.

③ ㉰는 '어류'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속성이 '잉어'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다.

④ ㉮와 ㉯가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가 되는 것은 '잉어'의 외연이 '어류'의 외연보다 크기 때문이다.

⑤ ㉯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22.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7번 공통지문 문제)

① ㉠: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② ㉡: 가리켜 보임.

③ ㉢: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함.

④ ㉣: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둠.

⑤ ㉤: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1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가)와 (나)는 문학 행위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화자가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선택한 시 쓰기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작가의 지난(至難)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① (가)에서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② (가)에서 화자가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시를 쓴다.'는 것에서 문학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겠군.

③ (가)에서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④ (나)에서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겠군.

⑤ (나)에서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24. (가)의 ㉠을 (나)와 연결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달이 '조개를 내리쳐'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 것과 같이, ㉠은 시인이 노력 끝에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②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미 해달의 모습과 같이, ㉠은 독자를 위해 가져야 할 시인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③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과 같이, ㉠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인의 무모함을 의미한다.

④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은 어미 해달처럼, ㉠은 시인에게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⑤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은 시인이 문학의 언어를 선택할 때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2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번 공통지문 문제)

① 임금은 왕위를 잃은 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② 자허는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③ 기이한 사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④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적을 받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4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임제는 남효온이 지은 사육신의 전기인 「육신전(六臣傳)」의 주제를 수용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는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과 절의를 지켜 그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당시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를 드러내고 있다.

① '임금'은 단종을, '예닐곱 신하'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새 임금은 거짓'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세조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썩은 선비들'이라는 '기이한 사내'의 질책에는 절의를 지키지 않고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강개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한바탕의 꿈'을 통해 당시에 금기시되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통분한 어조'로 매월거사가 한 말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27. 윗글의 '자허'가 '임금'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번 공통지문 문제)

> 신은 삼가 전하께 글을 올리옵니다. ①꿈속에서 소신이 전하를 알현했을 때 전하께서 고결한 선비로 대우해 주셔서 감격했습니다. 전하께서 선위에 대해 논하실 때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②복건을 쓴 자와 달리 전하께서는 선위를 한 옛 임금들과 선위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아울러 비판하신 것 같았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전하께서 소신을 위해 비단 도포를 팔아 술을 사 오게 하실 때는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술자리에서 ③자연물에 의탁하여 마음을 드러내신 전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노래까지 끝난 후 나타난 위풍당당한 무인의 검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④전하께서는 궂은 날씨 속에서 뇌성과 함께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고, 소신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워낙 꿈이 생생한지라 ⑤소신은 꿈에서 겪은 일을 의기가 넘치는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전하를 뵈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 전하,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8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북찬가」는 역모 사건과 관련되어 귀양을 가게 된 작가의,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과 한탄의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찬가」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심을 노래한 다른 유배 가사들과는 구별된다.

① '밤밤마다 꿈에 뵈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군.
②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올고'에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군.
③ '여의 잃은 용'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귀양 보낸 임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군.
④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에는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군.
⑤ '나 아니면 뉘 뫼시며'에는 노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군.

29.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8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 이존오의 시조 –

① ㉠은 화자의 염려가 투영된 소재이고, ⓐ는 화자의 소망이 의탁된 소재이다.
② ㉠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③ ㉠은 화자가 처한 불행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④ ㉠은 화자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는 화자로 하여금 탈속적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⑤ ㉠은 화자에게 현실 극복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는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체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41번 공통지문 문제)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묶음만은 집어 쥔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웨까?'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41번 공통지문 문제)

< 보 기 >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33.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번 공통지문 문제)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며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